

● 명인 명소

강릉 안동권문의 옛터 - 강릉 오죽현

원래 오죽현烏竹軒은 강릉 향현인 조은(釣隱) 최치운(崔致雲) 선생이 창건하였으나 그의 아들 최승현(崔應賢)이 사위 이사온(李思溫)에게, 이사온은 다시 그의 사위 신명화(申命和)에게 물려 주었으며, 신명화의 부인이자 신사임당의 모친이신 이씨부인께서 다섯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냇째딸의 아들인 권처균(權處均)에게 묘소를 보살피라며 북평촌의 집(현 오죽현)과 노비, 전답 등을 상속함으로써 정부의 문화재정비사업에 의거 국가로 이관될 때까지 무려 18대에 걸쳐 450여년간 우리 안동권문의 추밀공파 종가(宗家)로 이어져 왔다. 오죽현이란 이름도 외 할머니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권처균이 별당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오죽현烏竹軒”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호도 오죽현이라 부른 데에서 연유한다.

오늘날 오죽현이 우리 권문의 종가 대이었다는 사실보다는 강릉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더 잘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오죽현공의 이모이신 신사임당(申師任堂)과 이종형인 율곡(栗谷)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겨레의 스승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별



오죽현 전경

당 시장채로 우리나라 주거 건축물 중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서 건축양식과 구조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나 1963년 1월 21일 국가보물 제16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오죽현의 현재 모습은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오죽현 정화사업에 의한 것으로 경내에는 율곡 선생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신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유품을 넣었다는 동룡실, 정조임금의 친필이 새겨진 유품 선생의 벼루와 격동묘결이 전시된 어제각이 있고, 유품

기념관에는 이씨부인의 분재기를 비롯한 사임당, 유품, 매장, 육산 선생 등 신사임당과 그 자녀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화폐의 주인공 유품과 신사임당

*5천원권 화폐 인물 유품 이이
1977년 6월 11일 발행개시
*5만원권 화폐 인물 신사임당
2009년 6월 23일 발행개시

강릉 종친회장 권혁운

장으로 치르게 되었다. 유족이나 대외적으로 송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에서 차종손(故 권오학의子 권기식)을 파종손으로 승증하는 고유제를 아카시아꽃 향기와 솔향기와 그윽한 숭덕산 자락 단소에서 각 문중어르신과 파친회 회장, 일가친척 등 40여명이 모여 말끔이 단장된 자리에서 봉행하게 되었다.

권무탁 파종회 회장께서는 중심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검교공파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권기식 파종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자라왔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문중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차근 차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학합과 단합, 전통과 예를 지키는 약속으로 파종손과 참석자 전원이 맞절을 하 고 마쳤다.

조현관 : 권무탁 파종회 회장

이현관 : 권기식 파종손
종현관 : 권영민 전한공파친회 회장
대축 : 권태혁 파종회 수석부회장
집례 : 권중수 파종회 부회장

검교공파종회 총무부장 권영호

검교공파 파종손 승종(承宗) 고유제 봉행



권중수 부회장, 권태혁 수석부회장, 권영민 전한공파친회 회장, 권기식파종손, 권무탁 회장(왼쪽부터)

검교공파종회(회장 권무탁)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김면 유품리 소재 송덕산 파조(禱諱 離偶)의 단소에서 파종손 승종 고유제를 경건하게 봉행

하였다.

검교공파종회는 파종손(故 권오학 35세)이 지병으로 세상을 하직하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는 시기라 장례마저 가족

중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다고 하시며, 이번 발간하는 대사성공 파보(印人印壬寅譜 : 죽보)는 1992년 파보 발간 이후 30년 만에 만드는 소중한 기록물로 출생과 결혼,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청 받아 보증과 여려번 수정하였으며,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경 죽보가 발간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지방 선거에서 3선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권혁열(權赫烈, 복야공파, 36세) 당선자는 종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현주 총무는 3년간 추진한 종무 활동사항을 보고하였고, 지난 4월 20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년도 결산보고와 금년도 예산안을 재무인 권혁동이 상세하게 보고 하였으며, 끝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족친으로 구성된 수도종친회 총회가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립관에서 개최된다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일가에 연락하시여 많이 참석토록 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코로나 관계로 못다 한 이야기로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님회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한 후 삼삼오오 친한 분들과 유흘도 변함없이 친년을 이어온 굿당과 씨름, 그네, 관노 가면극은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노천시장인 난장을 돌아보려고 단오장으로 향하였다.

행사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모든 회가 금지됨에 따라 단오행사가 축소되어 간소하게 진행하다, 올해는 3년 만에 이어져 오던 전 종목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는 권현주 총회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능동묘역을 향하여 망배를 드리는 순서로 시작하여, 원로 고문과 수도종친회 임원, 강릉종친회 회장단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권오록 종회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코로나 펜더믹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강릉 대사성공종회 제43차 화수회 개최



대사성공종회 화수회에서 인사하는 권오록 회장(단상)

대사성공(韻諱棕) 종회는 지난 6월 3일 옥천동 유서 깊은 보진당(20세 売鉢)에서 족친 48명, 미님회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화수회(花樹會)를 개최하였다.

강릉 대사성공종회 화수회는 매년 단오날 개최하는데,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중 하나로 1년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5월 5일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 행사로 강릉을 비롯하여 영동 지역 남녀노소가 단오장을 찾는 고유명절

강릉 대사성공종회 권혁동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주연)는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 종친회관 2층 대종회 안동사무소에서 파종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파종회장들은 이날 오전 안동권씨 좌윤공파가 주최하는 '좌윤공 단소 고유제 및 연원재사 준공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갖기 위해 파종회 안동사무소로 이동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권주연 협의회 회장, 권기덕, 권인탁 협의회 두 고문,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세복 복야 공파 회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오준 부정공파 회장, 권육형 급사중공파 회장, 권영탁 중윤공파 회장, 권기홍 군기감 공파 회장, 권영택 정조공파 회장, 권병도 회장공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

소 사무국장, 권영건 안동권씨종보 보도부장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권계동, 권기호 협의회 두 고문, 권오창 종파 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회장,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권중근 시중공파 회장, 권무탁 검교공파 회장 등 7명은 유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권육형 급사중공파 회장은 자리를 같이한 회장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인사말에서 “저는 강원도 횡성군에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곧 이어 권주연 회장은 현 대종회 회칙이 다소 불합리한 데가 있다고 지적, 정관 일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해야 할 일부 회칙은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총회), 제14조(상임위

원회), 제21조(재정운영) 등으로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할 조(條), 항(項)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자면 임시 총회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한 회장들이 서명 날인한 ‘정관개정 건의서’를 대종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각 파종회장들의 년 회비와 현성금 인상은 부결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은 오는 11월 중순 때 봉행할 시조 및 아시조 추향제의 도유사, 현관, 찬자, 축관, 제유사를 원하는 종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가 인사자 간담회장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자 권주연 회장은 충남 흥성군 광천특산물인 김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2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여론이나 민심이 특히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의견과 결정은

국민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국가 권력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데, 고유제 제1조 ①·②항에 명시되어 있다.

나라와 겨레(민족)를 위해 국민 개개인 각자 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다하며 학생의 위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다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국가에게 의사 전달을 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국가 중대사의 모든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君君臣臣，父父子子’와 ‘政在正也’(“논어”, “공자가어” 17 “哀公問政”)라는 말이 있듯, 국민과 국민의 공복(公僕)인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은, 각자가 국민은 나리의 주인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소임을 충실히 해야하고 정자는 사의보다 공의, 즉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처신(立人)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와 역사적으로 사대 외교를 많이 해왔다. 사대 외교는 그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물론 모든 것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사대 외교는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쉽고 국왕의 위엄이 인정된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훈이나 나라의 보전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유교의 민본 정치사상에서 보아도 나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주위 사방(四方)의 여느 민족들을 다 ‘오랑캐’(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라고 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오랑캐를 자신들의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탄생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것’(이이제이夷以制夷; “후한서” 권16, “열전” 제6, “등구열전鄧寇列傳”) 정책인 것이다.

고대 중국왕조가 주위 변방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 나라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의미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주위 사방(四方)의 여느 민족들을 다 ‘오랑캐’(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라고 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오랑캐를 자신들의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탄생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것’(이이제이夷以制夷; “후한서” 권16, “열전” 제6, “등구열전鄧寇列傳”) 정책인 것이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근현대 구미(歐美)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에서도 정치와 사회학에서 분열과 지

인조반정(1623 ; 궁정쿠데타)으로 일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친朋배금(청) 외교안보 정책실패와 사대주의 외교로 인한 전쟁이 확실하다고 본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로 후금과 명 나라 사이에 실리를 찾았으나, 인조는 후금(청)을 배척하고 명에 사대를 계속한 결과 청나라가 침략해오고 남한산성에서 폐쇄되어, 삼전도(三田渡)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頤禮; 신하가 정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향을 하는 굴욕을 당하였다.

고려시대 묘(나라)와 북송에 대한 외교에 대해 살펴보면 만주에서 성장한 여진족이 묘나라를 1125년에 멸망시켰고, 1126년에는 금나라를 건국한 후에 수도를 남쪽의 임안으로 옮긴 남송과 전쟁 상황에 돌입했다. 고려로서는 또 다시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1127년에 송나라 임안(臨安; 현재 절강성 杭州)에서 고종(高宗; 康王 趙構, 徽宗의 9子)이 즉위(繼位) 즉위한 곳은 하남성 商丘; 북송 당시 남경 응천부(今富 輓, 1075~1151) 등을 축하사절로 파견했지만, 끝내 수도 임안까지 갈 수 없었다. 고려 사신들이 자국을 정탐해 금나라에 정보를 줄까봐 의심한 탓이다. 남송은 다음해인 1128년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공동 군사작전을 재차 요구했으나, 고려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이후 고려와 남송은 알력이 있었지만 고려는 끝까지 송과 금나라의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등거리 외교로 평화와 이익을 챙겼다.

고려는 일본과도 교섭을 벌여 통일한 직후인 937년부터 몇 차례 사신을 보냈으나 교섭은 활발하지 않았다. 12세기 후반(1185)부터 가마쿠라(鎌倉) 막부(幕府, ~1333)의 무신정치가 시작되면서 전쟁 등의 갈등 때문에 고려에게는 위협적이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전략적인 가치가 약했다. 다만 유구국(琉球) 1429~1879; 현재 오키나와県, 조선과 명·청·일본에 조공무역)은 무역 상대로서 가치가 있었다. 〈 다음호에 계속 〉